



‘시민의회’ 입법추진100인위원회

출범의 경위와 향후계획

2024년 5월 8일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출범선언식



<시민의회입법추진 100인위원회> 출범식

사회 | 이원영(100인위원회 집행위원)

10:00~10:15	접수
10:15~10:20	인사말 이래경(100인위원회 준비위원장)
10:20~10:30	축사 추미애(前 법무부장관)
10:30~10:40	영상축사 고든 캠벨(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前 수상)
10:40~10:50	국제심포지움 참여 내외빈 소개 및 축사 데이비드 페럴, 민 류상 외
10:50~11:05	시민의회입법추진 100인위원회 출범의 경위와 향후 계획(사회자)
11:05~11:30	기조강연 곽노현(前 서울시교육감)
11:30~11:55	시민의회입법추진 선언식
12:00~1:30	점심 리셉션

경 위

- 2022년 06월 시민의회및직접민주주의 필요성 집담회
- 2022년 12월 직접민주주의 하반기 세미나 (이래경 발제)
- 2023년 12월 시민의회입법추진 필요성과 추진방향 집담회
- 2024년 02월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결성착수
- 2024년 03월 100인 모집완료(이후 약간의 변동)
- 2024년 04월10일 총선 (추미애고문, 강경숙위원 당선)
- 2024년 04월15일 사전모임(서울 문화공간 온)
- 2024년 04월18일 4.19전야 대구토크쇼(추미애, 이래경)
- 2024년 05월08일 국제심포지움 개최 및 100인위원회 출범선언

[2022년 4월 회동 제안문 발송 편지]

○○○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오늘 서대문에서 곽노현 우희종 이원영 세 사람이 차를 한잔 하면서 시민의회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 1) 최근 들어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 현안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의제민주주의와 기존 정당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다,
- 2) 지금 한국사회는 기후위기나 교육문제 등 개혁수준을 넘어선 혁명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에 비해 이를 견인하고 기초를 세우는 실체가 빈약하다는 점
- 3) 그동안 회자되었던 직접민주주의의 실행을 '숙의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
- 4) 그 IT기술에 의해 저비용으로 시민의회와 같은 기구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 5) 이러한 맥락의 내용을 주장해온 인적네트워크가 충실해서 사회를 향해 논의를 확산할 역량이 형성된 시점이라는 것

그리하여, 관심있는 분 그리고 관심있을 분 그리고 이 주제를 실현하실 역량이 있는 분들이 일단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가지면 좋겠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밤 곽노현 우희종 이원영 드림

2022년 6월 16일 집담회 참석자:

곽노현 김상준 이지문 임진철 이진순 우희종 정철승 전주미 오현순 류두현 이원영



2022년 6월16일 집담회의 한장면

집담회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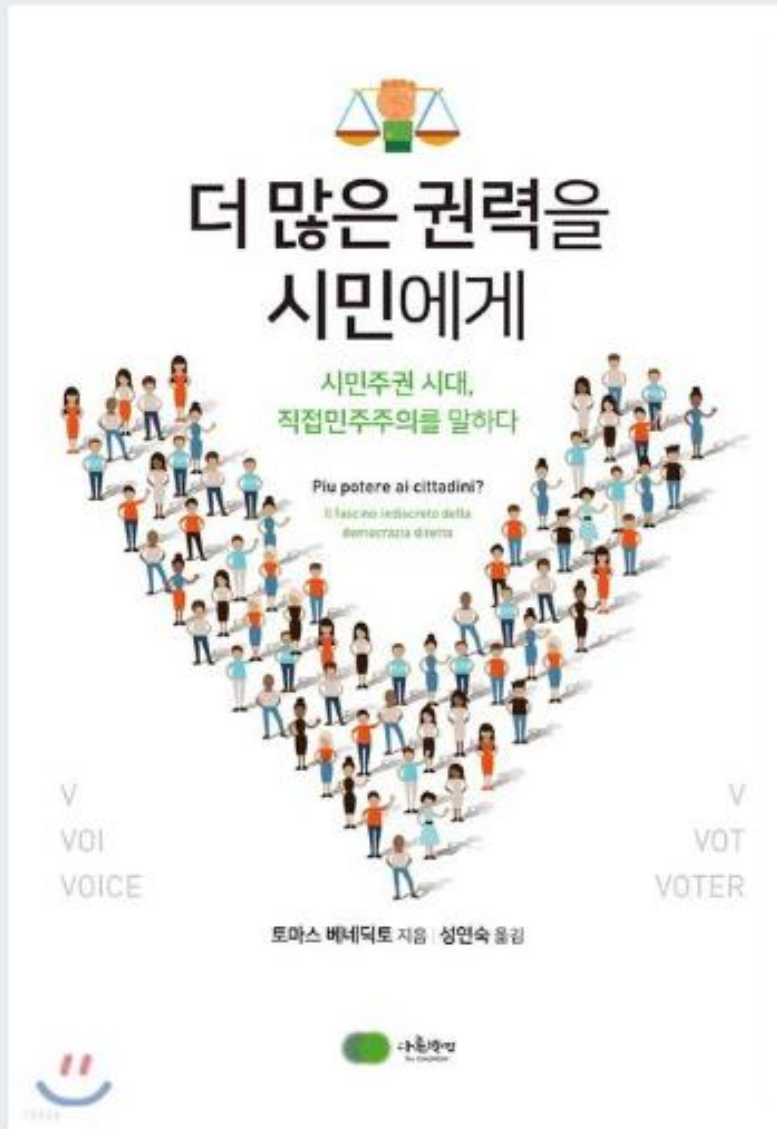
[시민의회 입법추진 | \[집담회2022년6월\] 시민의회/직접민주주의 집담회 - Daum 카페](#)

[시민의회 입법추진 | 주요문장 2022년6월 '시민의회' 집담회 - Daum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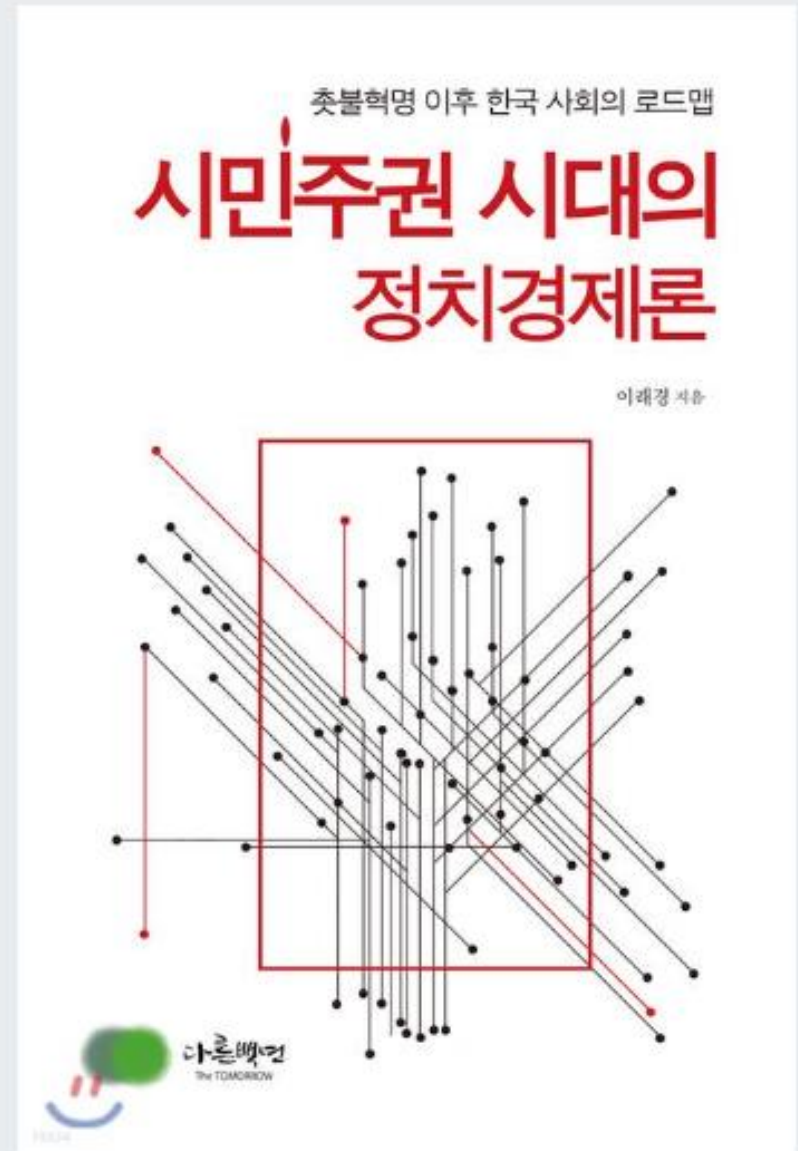
국회도서관 시민의회 관련 문헌자료(언론기사 제외)

저자	발행년	자료명/저자사항	발행자
김상준	2006	헌법과 '시민의회' / 김상준	박영률출판사 한양대학교출판부
오현철	2010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의회 : 브리티시 컬럼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 오현철	한국사회과학교육학회
오현철 외	2013	교육정책 결정에 적합한 의사결정 모형 탐색 : 정부 주도 및 이익집단 경쟁에서 시민의회 모형으로 / 오현철, 강대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김양화	2015	마르크스의 '정치이론-가설'과 '추첨제 시민의회' 대안의 적실성 / 김양화	녹색평론사
오현철	2015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 오현철	참언론
김상준	2017	시민의회 구성으로 촛불 혁명 완성해볼까 / 김상준	민연
하승수	2017	시민의회,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 하승수	창비
오현철	2017	시민의회,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 / 오현철	
곽노현 외	2017	시민의회를 생각한다 [좌담] / 곽노현, 오현철, 이지문, 이진순 ; 김종철 사회	녹색평론사
김상준	2017	시민의회, 왜 필요한가 / 김상준	녹색평론사
임지봉	2017	지역민회와 시민의회의 헌법원리적 검토 = An Examination on Local Comitia and Citizen's Assembly based on Constitutional Principles / 임지봉	법과사회이론학회
이지문 외	2017	광장정치와 제도정치의 보합으로서 추첨시민의회 모색 = Taking the Politics of Street and the Parliamentary Politics Together Seriously : Evaluating Potentials of the Randomly Selected Citizen Assembly / 이지문	한국NGO학회
김상준	2017	'시민정치 헌법화'의 경로와 방법 = How to Constitutionalize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Korea? :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 김상준	법과사회이론학회
손우정	2017	탁월한 사람들에게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로 [서평] : 「추첨시민의회」, 이지문·박현지 지음 / 손우정 [평]	삶창
이관후 외	2018	시민의회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 이관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지문	2018	시민의회는 직접민주주의인가, 대의민주주의인가? = Is the citizen's assembly a direct democracy or a representative democracy? / 이지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이관후	2018	'시민의회'의 대표성 = The Representativeness of 'Citizen's Assembly' : 유권자 개념의 변화와 유사성 문제를 중심으로 / 이관후	한국정치학회
이관후	2018	Deliberative Democracy의 한국적 수용과 시민의회 = Acceptance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n context and citizen's assembly : 숙의, 심의, 토의라는 번역을 중심으로 /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강명원	20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 직접참여권 = Citizen participation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CCC)를 중심으로 / 강명원	유럽헌법학회
문은영	2023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사례연구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 Case studies of electoral reform through citizens' assemblies : British Columbia, Ontario and Netherlands / 문은영	국회입법조사처

다른백년 1.0 도서



토마스 베네딕토,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이래경,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

2022년 12월 하반기 세미나 (이래경 발제)



직접민주주의포럼 2022년 하반기 세미나



“시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

-정당중심 대의제를 넘어서는 현대직접민주제(MDD)와 열린 민주주의(Open Democracy)-

발제: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2022년 12월 19일 (월) 오후6시반~9시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서대문역 3번출구 300미터 덕산빌딩 3층)

〈직접민주주의포럼〉에 대하여

최근 정치권의 ‘수박’ 시비에서 보듯이 대의제(代議制)라는 간접민주주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함이 윤석열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커다란 전환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후위기 등 지구촌 차원의 주요현안에 대해 국민투표제도 뿐 아니라 시민들이 가진 의제설정 역량을 발휘하여 지성정치권을 견인하여야 한다는 유럽형 피어어셈블리(일종의 시민의회)에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식자들의 주장이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관심있는 이들이 모여서 ‘개방형 포럼’으로서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이제 두 번째 모임입니다. 누구든지 관심있는 이들이 오셔서 함께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참여자(가나다순)

고은광순, 곽노현, 김상준, 류두현, 박영운, 안진걸, 오현순, 우희중, 이래경, 이원영, 이지문, 이진순, 이창국, 임진철, 전수미, 정철승, 최자영

● 시민의회의 필요성

1. 권력의 총량이 커짐에 따른 대응체제의 필요성: 3권분립이 아니라 4권분립의 시대로

- 1) 시대변화로 제도권(대통령과 의회)이 담당할 권력의 크기도 커졌지만,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제도권 바깥의 권력수요가 커졌다: ①경제규모의 변화 ②정주권의 확장 ③IT시대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커짐 등의 요인
- 2) 권력수요와 공급의 어긋남에 따른 부조화 발생. 그 공백에 자본력이 침투하면서 권력증가분을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 양극화의 원인.
- 3) 권력총량을 안정적으로 감당해내려면 4개의 상다리가 필요.

2. 주권자의 직접민주주의에의 요구가 커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시대

- 1) 현재는 ‘대리운전’과 같은 대의제민주주의: ‘차주의 직접운전 욕구’: ‘대리운전자’ 정치권의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국민의 수준보다 뛰어나지 않다((예) 거대야당의 능력부재): 위급한 국제정세에 비해, 현명한 의사결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극히 불만을 가진 국민들.
- 2) 중우민주주의가 아니라 속의민주주의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IT기술시대
- 3) 시민의회 권력구성(추첨제)과 권력사용(짧은 임기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시대

3. 지구촌의 대세 그리고 제도화의 필요성

- 1) 기후위기시대에 신속하고도 공감력을 갖는 의제설정능력의 발휘가 요구됨.
- 2) 유럽 민주국가의 시민의회 시행사례(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프랑스)가 갖는 시대적 요구
- 3) 시민의회는 ①여론조사용 수시형 ②의제설정용 상설형 등의 종류를 구상할 수 있으나, 어느 쪽이든 운영방안, 효력, 재정지원 등을 둘러싼 법적 장치가 요구됨

2023년 12월 26일 시민의회 집담회

곽노현, 추미애, 이래경, 오현철, 우희종, 양홍관, 이명재, 이원영, 김영숙, 안승문, 고은광순, 김민웅, 박재동



2023년 12월 26일 시민의회 집담회 장면

[시민의회 입법추진 | 주요문장 2023년12월 '시민의회' 집담회 - Daum 카페](#)

→ 이때 국제심포지움 추진 결정

입법추진100인위원회를 만들고자 한 이유

-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자원 조성**

- 뜻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
- 1인당 참여금 30만원 x 100인= 3천만원

- **시민의회 입법을 추진할 시민사회의 동력을 모으기**

- 1) 입법을 추진하는 에너지의 결집
- 2) 입법 후 제대로 기능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시민사회의 구심점 형성



고든 캠벨



헬렌 랜드모어

5월 국제심포지움에 참여할 외국 인사 섭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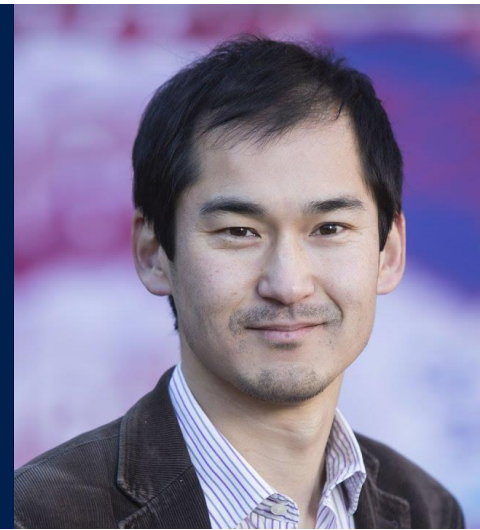


데이비드
패렐

민
류상

1 an de
lockdown

Min Reuchamps,
politologue



‘시민의회’입법추진준비위원회를 조직 (2024-01)

준비위원장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고문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추미애(전 법무부장관)

준비위원

김상준(경희대 교수)

이원영(전 수원대 교수, 집행위원)

이지문(연세대 연구교수)

+

김주형[서울대 교수]

서현수(한국교원대 교수)

안철택(경북대 교수)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citizenassembly>



1877-2270



2024년 1월 19일

뉴탐사 스튜디오에서 추미애고문의 시민의회 발언

준비위원회의 시민언론 민들레 릴레이 기고

[시민의회 ① 상] 21세기 민주주의의 새 표준

곽노현 전서울시교육감 2024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4>

[시민의회 ① 하] '시민 눈높이 해법' 찾는 데 최적의 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5>

[시민의회 ②] 유권자 선택권과 효능감 최우선시한 캐나다 시민의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2>

민주주의의 첨단 '시민의회'

김상준 경희대 교수

2024.02.21 [시민의회 연속기고 ①] 선거 한계 넘는 '진짜 대표성' 구현
시민들의 토론과 집단지성으로 민주주의 혁신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7>

추첨과 숙의가 결합된 시민의회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2024.02.27 [시민의회 연속기고 ②] 직접민주주의 이상에 부합
특수이익 대변 아닌 전체 국민 축소판 '소우주' 구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1>

시민의회는 인류 백년대계의 기둥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2024.03.03 [시민의회 ③]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징검다리
4.10 총선 이후 법제화 강력 추진 제안한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0>

3.1절 105주년 기념



에일드뉴스

새 시대를 열어갈
‘시민의회’를 말한다



추미애



곽노현



이래경

방영 2024년 3월 1일(금)
녹화시간 2월 26일(월)10:30
뉴탐사 스튜디오

공동주최(안)
다른백년 뉴탐사 민들레
주관
‘시민의회’입법추진위원회

시민의회 입법추진 [[뉴탐사]
추미애 이래경 곽노현
좌담회 - Daum 카페

[4.19 혁명 64주년 기념]

<토크쇼>

새 시대를 열어갈 시민의회



[기조발언1] "새 시대를 열어갈 시민의회"
- 추미애 前법무부장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기조발언2] "왜 지금 시민의회인가?"
- 이래경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준비위원장

일시 2024년 4월 18일 (목) 16:00~19:00

장소 혁신공간 '바람'
(053-256-4343 / 대구 중앙로역 2번 출구)

비용 행사 참가비 없음 / 인근 식당 뒤풀이 20,000원

참가문의 심상균 010-6243-3860(사전등록한 분만 입장 가능)

주최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주관 '시민의회' 대구경북추진단

[추미애/이래경] 4.19전야
'시민의회' 대구
토크쇼(2024-04-18) 영상

https://youtu.be/2cBctt3Ypo8?si=Hs8lUzXFfA_n7Yzy

https://youtu.be/7rotS9xcjfM?si=L_wX6tABt-Z0Fi3J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시민의회



글/그림 박흥렬

제작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시민의회 입법추진 [[웹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시민의회(글,그림
박흥렬) 인쇄용 - Daum 카페



[울산저널2024-04-18] "소통기술 발달, 시민이 언론을 만드는 시대...시민의회로 더 좋은 민주주의를"

<https://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81970363072>

시민의회 국제 심포지움

2024. 5. 8(수)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Citizens' Assembly International Symposium

May 8, 2024(Wed)

Korea Press Foundation (Press Center)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20th Floor) Seoul, Korea

1부

<시민의회입법추진 100인위원회> 출범식

사회 | 이원영(100인위원회 집행위원)

10:00-10:15	접수
10:15-10:20	인사말 이래경 (100인위원회 준비위원장)
10:20-10:30	축사 추미애 (前법무부장관)
10:30-10:40	영상축사 고든 캠프벨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前수상)
10:40-10:50	국제심포지움 참여 내외빈 소개 및 축사 데이비드 패렐 교수, 민 류상식
10:50-11:05	시민의회입법추진 100인위원회 출범의 경위와 향후계획(사회자)
11:05-11:30	기조강연 곽노현 (前서울시교육감)
11:30-11:55	시민의회입법추진 선언식

12:00-1:30 **점심 리셉션**

2부

시민의회 국제 학술 심포지움

사회 | 김의영(서울대)

기조발제

1:30-2:00	기조발제1 김상준 (경희대) 시민의회, 세계와 한국의 흐름
2:00-2:30	기조발제2 David Farrell (더블린대) 아일랜드 시민의회의 성취와 교훈
2:30-2:40	티타임

세계 및 한국의 사례와 방향

2:40-3:10	Hélène Landemore (예일대) 영상발표 옐린 민주주의와 프랑스 기후 시민의회
3:10-3:40	Min Reuchamps (루방대) 벨기에 시민의회 법제와 사례
3:40-4:10	이지문(연세대) 한국 시민의회 사례 보고
4:10-4:40	김주형 (서울대), 서현수 (교원대) 한국에서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고려 사항
4:40-4:50	티타임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4:50-5:4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5:40-5:45	마무리 발언(이래경 준비위원장)

주최 / 주관 시민의회입법추진 100인위원회

Part 1

Launch of the Citizens' Assembly Legislation Promotion 100-Member Committee

Moderator | Lee Won-young(Executive member of the 100-Member Committee)

10:00-10:15	Registration
10:15-10:20	Welcome Speech Lee Raekyung (Preparatory chairman of the 100-Member Committee)
10:20-10:30	Congratulatory Speeches Choo Mi-ae (Former Minister of Justice)
10:30-10:40	Video Congratulatory Messages Gordon Campbell (Former Premier of British Columbia, Canada)
10:40-10:50	Introduction and congratulatory speech to guest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David Farrell (University College Dublin), Min Reuchamps (University of Louvain), and others
10:50-11:05	The Launching Process and Future Plan of the Citizens' Assembly Legislation 100-Member Committee(Moderator)
11:05-11:30	Keynote Speech Kwak Nohyun (Former Seoul Metropolita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11:30-11:55	The Citizens' Assembly Legislation Promotion Declaration

12:00-1:30 **Lunch Reception**

Part 2

Citizens' Assembly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Moderator | Kim Eui-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Keynote Presentation

1:30-2:00	Keynote Presentation 1 Kim Sangjun (Kyung Hee University) Citizens' Assemblies, Waves in the World and Korea
2:00-2:30	Keynote Presentation 2 David Farrell (University College Dublin) The Irish Model of Citizens' Assembly: Achievements and lessons
2:30-2:40	Tea Time

Cases and Directions of World and Korea

2:40-3:10	Hélène Landemore (Yale University) Video presentation Open Democracy & French Citizens' Assembly on Climate Change
3:10-3:40	Min Reuchamps (University of Louva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ermanent Citizens' Assembly in Belgium
3:40-4:10	Lee Jimoon (Yonsei University) Case Report on the Korean Citizens' Assembly
4:10-4:40	Kim Joohy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 Hyeon Su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onsiderations for Institutionalizing the Citizens' Assembly in Korea
4:40-4:50	Tea Time

General Discussion & Closing remarks

4:50-5:40	Q&A and General Discussion
5:40-5:45	Closing remarks(Lee Raekyung , Preparatory chairman of the 100-Member Committee)

Managed by Citizens' Assembly Legislation Promotion 100-Member Committee



2부

시민의회 국제 학술 심포지움

사회 | 김의영(서울대)

기조발제

- 1:30~2:00 **기조발제1** 김상준(경희대)
시민의회, 세계와 한국의 흐름
- 2:00~2:30 **기조발제2** David Farrell(더블린대)
아일랜드 시민의회의 성취와 교훈
- 2:30~2:40 티타임

세계 및 한국의 사례와 방향

- 2:40~3:10 Hélène Landemore(예일대)
영상발표 열린 민주주의와 프랑스 기후 시민의회
- 3:10~3:40 Min Reuchamps(루방대)
벨기에 시민의회 법제화 사례
- 3:40~4:10 이지문(연세대)
한국 시민의회 사례 보고
- 4:10~4:40 김주형(서울대), 서현수(교원대)
한국에서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고려 사항
- 4:40~4:50 티타임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 4:50~5:4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5:40~5:45 마무리 발언(이래경 준비위원장)



향후계획

- 국제심포지엄으로부터의 시사점과 교훈을 소화
-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집담회 수차례 개최

입법추진과 관련되는 3가지 영역과 추진의 방향

• 국회

- 입법추진의 공감대 형성
- 법안작성과 통과에 이르는 로드맵

• 지방자치단체

- 2026년 선거에서 보편적 공약으로 채택되기
- 시민의회 운영의 성공사례의 축적

• 시민사회

- 참여의 에너지결집과 저변확대
-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이는 액션플랜

연필로 그렸던 구상 (04월15일 작성)

2024년 06월 이후 새 국회 개원 후 활동구상

- 국회내 '시민의회' 입법추진 동아리 결성
- 외국현장 견학 1회~2회 (동아리+ 100인위원회중 희망자)
- 귀국후 대국민 보고회: 여론조성
-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토록 준비
- 지방선거이후 본격 입법추진

→ 100인위원회를 모태로 일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를 결성

가까운 시일의 진행계획

- **100인위원회 세미나 겸 집담회 (1박2일)**
 - 향후 추진의 방향을 정하는 집단토론회
 - 7월19일(금)~20일(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정읍)
- **집담회 준비를 위한 ZOOM회의 (6월중순)**
 - 국제심포지움의 내용을 리뷰하면서
 - 7월 집담회 진행방안의 준비를 겸하는 줌회의
 - 텔레방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시기를 결정



<시민의회입법추진 100인위원회> 출범식

사회 | 이원영(100인위원회 집행위원)

10:00~10:15	접수
10:15~10:20	인사말 이래경 (100인위원회 준비위원장)
10:20~10:30	축사 추미애 (前 법무부장관)
10:30~10:40	영상축사 고든 캠벨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前 수상)
10:40~10:50	국제심포지움 참여 내외빈 소개 및 축사 데이비드 페럴 , 민 류상 외
10:50~11:05	시민의회입법추진 100인위원회 출범의 경위와 향후 계획(사회자)
11:05~11:30	기조강연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
11:30~11:55	시민의회입법추진 선언식

12:00~1:30

점심 리셉션

지하1층 더테이블 한정식

- 11:30~11:55 의 시간대 진행방안
- 1) 무대위로 100인위원 모두가 등단
 - 2) 출범선언서 낭독 (추첨으로 낭독자 선정)
 - 3) 100인중 10인의 발언(추첨으로 10인 선정)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1 (2024년 5월3일 현재)

강경숙(원광대 교수)
강남훈(한신대 명예교수)
강민정(국회의원)
강윤희(정읍시민)
고병수(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

고은광순((사)평화어머니회 이사장)
고청심(인공지능IoT전문가)
곽노현(前 서울시교육감)
김경미(천안아산촛불행동 대표)
김경호(강남향린교회 목사)

김국재(노무현재단대구경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
김근수(해방신학연구소장)
김도형(조선대 초빙교수, 대한어머니회 광주연합회장)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
김미경(대구대 외래교수)

김부일(웹툰작가)
김분임(대구시민헌법학교)
김상준(경희대 교수)
김영숙(동탄시민연대 대표)
김영아(청소년희망정책포럼 대표)

김영준(변호사)
김용춘((주)한국수산자원 대표이사)
김윤기(5.18민주산악회 방장)
김의영(서울대 교수)
김정희(재불동포, 평화운동가)

김주형(서울대 교수)
김지원(촛불시민)
김해나(홍콩교민)
김화순(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노순일(변호사)

박동순(前 동원대 교수)
박미현(시인/화가, 부천시민연합 고문)
박바우(재미동포)
박병춘(前 계명대 교수)
박영주(촛불시민)

박용안(부산외대 초빙교수)
박유진(서울시의회 의원)
박인향(수원시민)
박인호(치과의사, 사법검찰개혁연구가)
박재현(인제대 교수, 前 수자원공사 사장)

박종린(불력회 대표)
박해순(작가, 한일관계연구가)
박흥식(영화감독)
서원명(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서현수(한국교원대 교수)

성 염(서강대 명예교수, 前 주교황청 한국대사)
성원기(강원대 명예교수)
신현영(서울시민)
심경옥(광주시민)
심상균(KB국민은행노동조합위원장)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2 (2024년 5월3일현재)

안금주(재일동포)
안철택(경북대 교수)
안형기(촛불시민)
안홍태((주)코레쉬텍 대표)
안효성(대구대 교수)

양승원(변호사, 前 통일법센터LOOK 대표)
양희제(서울시민)
오현순(공공의제연구소 오름)
우귀옥(촛불시민)
우희중(서울대 명예교수)

윤 황(前 충남연구원장,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
윤국현(서울시민)
이경훈(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주임교수)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성로(안동대 교수)

이숙명(문화해설사)
이승렬(영남대 前 교수회의장)
이승연(재독동포)
이원영(前 수원대 교수)
이정운(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종호(울산저널 편집국장)
이지문(연세대 연구교수)
이창호(언론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 前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
이현중(前 교사, 여수시민)
이호규(대구시민)

임기추(홍익경영전략원 원장)
임남희(재불동포, 동학민족통일회공동의장)
임배근(동국대 명예교수)
임상우(중립코리아국제협회 창립준비위원장, 前 서강대 부총장)
임희경(춘천시민)

정복철(경희대 교수)
정연진(재미동포, 액션원코리아(AOK) 상임대표)
정영훈(촛불혁명완성연대 공동대표)
정정화(강원대 교수)
정철승(변호사, 前 한국입법학회 회장)

정현태(前 남해군수)
조규호(서원대 교수)
조상호(세종특별자치시 前 경제부시장)
조흥식(서울대 명예교수)
진성영(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

최봉태(변호사, 일본군위안부헌법소원)
최원녕(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최유성(국민대 특수통신융합서비스 연구센터 연구원)
최지연(촛불시민)
최한성(前 대덕대 교수)

추미애(前 법무부장관)
한윤주(서울시민)
허인회(행복한동행사회적협동조합 자문위원)
홍선희(한국일보사우회부회장)
황광석(희망래일 이사)

감사합니다

준비위원장 이래경

문의: 이원영 집행위원 010-4234-2134 leewysu@gmail.com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citizenassembly>

시민의회 웹툰 보기 :

<https://cafe.daum.net/citizenassembly/bZYV/42>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소개

<https://cafe.daum.net/citizenassembly/bZYY/1>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201-593160 이원영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출범 선언문〉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출범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으로 규정한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일컬을 때는,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국민’이라기 보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의 ‘시민’이라는 말이 헌법개념에 합치함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정치 때문에 주권은 커녕 인간의 존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37년전 6월혁명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낳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선거라는 이름의 제도는,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단순 합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결함으로 인해 다수결 지배와 소수 의견의 배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대표성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기득권 엘리트들과 자본권력에 포획된 정치, 표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정치가 만연하게 됨에 따라 정치소외와 정치혐오를 낳았습니다. 시민 간 연대와 신뢰도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선출되지 않은 사법검찰권력이 시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과 자본에 포획된 언론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출만으로 이루어진 민주제도는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시민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축소, 퇴행, 붕괴시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7년전 촛불혁명이 있었음에도 민주주의가 도리어 퇴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리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숭한 시대적 난제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를 확대 재생산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초저출생, 초고령 등의 기존 난제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난제, 그리고 기후, 생태 위기에 직면하여 에너지전환 문명전환의 난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아무리 탁월한 대리인이 존재하더라도 시민 간의 괴리는 불가피합니다. 생존차원의 정치적 변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 전문가나 엘리트 정치인들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야 더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비용의 IT기술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작위 추천 원리에 기반해 무투표층까지 망라하여 구성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장하는 시민의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혁신적 시민참여 모델입니다. 시민의회야말로 대표성과 숙의에 기반한 시민참여의 정치모델입니다.

지구촌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찍이 시작한 캐나다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기후위기 시민의회를 실험했고, 파리와 브뤼셀시는 최근 기후위기 시민의회를 상설화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시민의회로 헌법개혁 과제를 실현했습니다. 시민의회를 상설기구로 제도화한 벨기에 독일어권공동체 의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OECD는 벌써 시민의회를 미래정치 거버넌스의 중요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론화위원회 등 다양한 숙의적 정책 실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상버스 도입에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가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과 실제 현장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의 견해를 당당히 바꾸신 대구 시민, 그리고 그동안 남편과 자식으로부터 무시당하며 살다가 시민의회 참여를 통해 자존감과 살아있음을 느꼈다며 눈물을 흘리신 관악구 어느 70대 시민의 사례들이 시민의회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원래 자신의 견해를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체적 마당에서는 그러한 변화마저 가능한 것입니다. 숙의를 거쳐 결정해가는 시민의회의 위력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는 물론 미래세대와 지구의 모든 생명까지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하는 대안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힘이 있기에 시민의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 또한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완하고 견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여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정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운영의 매뉴얼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는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래야 주권재민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입법추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심포지엄도 그 장치를 만드는 지혜를 습득해가는 과정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시민의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주체성을 각성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확장시키는 길입니다. 이번 새 국회에서 반드시 그 입법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동학에서 촛불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세계사적 핏줄을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우리입니다. 우리가 시민의회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이자 현실의 필연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의회의 제도화라는 커다란 성취를 이루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2024년 5월 8일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초안: 오현순 수정안: 김상준 진성영 서현수 고은광순 이래경 이원영)

기념촬영 및 선언문낭독 및 100인위원발언

- 추천에 의해 다음의 3인이 선언문을 낭독

- 우희종
- 안금주
- 김영아

- 추천에 의해 다음 10인이 100인을 대표하여 시민의회에 대해 발언(각 2분)

- 김분임
- 정영훈
- 임기추
- 김정희
- 정정화
- 우귀옥
- 강윤희
- 박미현
- 심상균
- 양희제